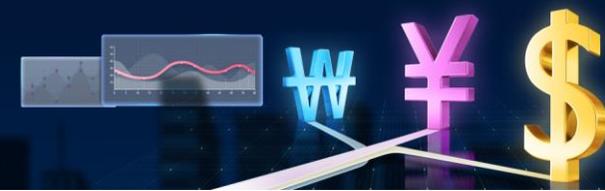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2023.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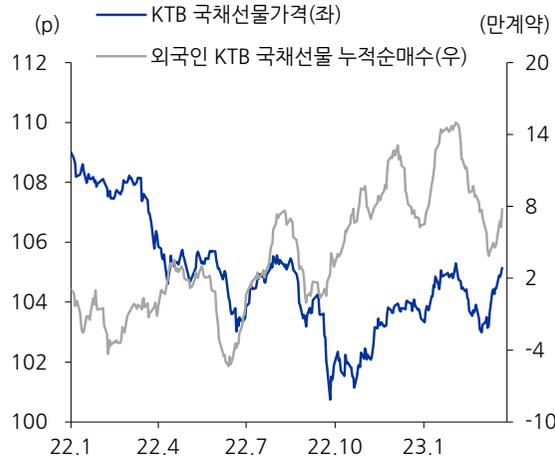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76_jhoonlee@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3/23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206%	-7.8	-19.4	-51.6
	한국 국고채 10년물	3.266%	-2.1	-12.8	-46.4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6.0	0.3	-0.6	0.8
	3년 국채 선물(KTB)	105.14	15.0	68.0	169
10년 국채 선물(LKTB)	114.69	1.0	155.0	474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3.841%	-8.9	-34.1	-57.8
	미국채 10년물	3.420%	-2.2	-16.2	-45.8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2.1	-48.8	-60.1	-54.2
	독일국채 10년물	2.190%	-13.6	-9.4	-37.5
	호주국채 10년물	3.289%	-7.6	-4.2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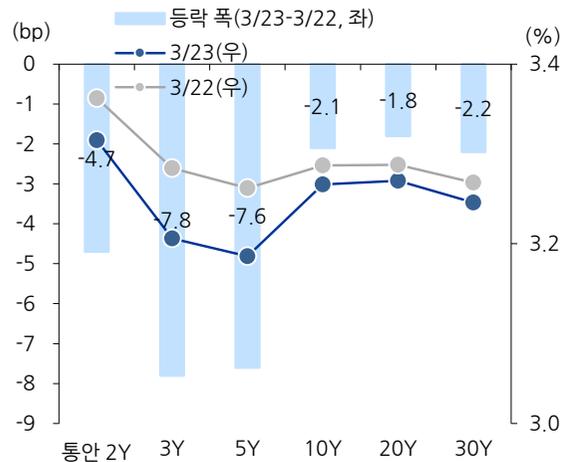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볼 스티프닝 마감. 완화적이었던 FOMC 영향.
- 새벽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신용여건 변화가 가져올 인상 효과 등을 거론, 완화적으로 해석됨에 따라 금리 하락. 사실 상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간다는 인식이 확대된 영향.
-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절반의 충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국내 외화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음.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 은행 불안과 함께 긴축 종료 임박했다는 인식 지속.
- FOMC에 이어 BOE와 심지어 SNB(스위스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했지만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종료됐을 것이라는 인식과 금융 안정 및 은행 불안 등의 여파로 금리 하락세 이어짐.
- 금일 일본 CPI와 EU, 영국, 미국 등 PMI 발표가 예정. 미국 2월 내구재수주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강연도 예정되어 있음. 최근 사태로 인해 심리지표 부정적 예상.

자료 출처: 연함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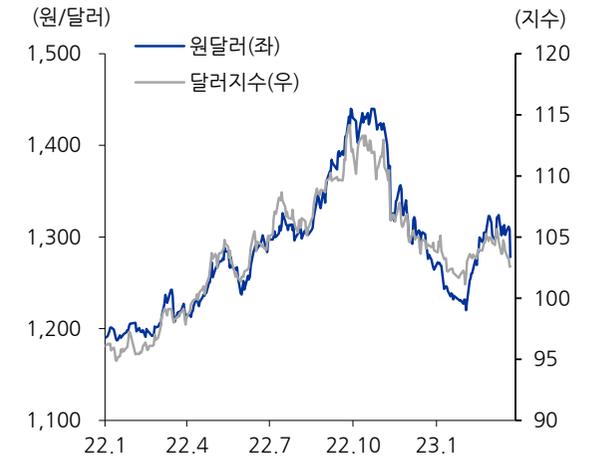
(단위: %, \$)

	3/23일	1D	1W	YTD
원/달러	1,278.30	-2.2%	-2.6%	1.1%
달러지수	102.61	0.0%	-1.8%	-0.9%
달러/유로	1.083	-0.2%	2.1%	1.2%
환율				
위안/달러(역외)	6.83	-0.5%	-0.9%	-1.3%
엔/달러	130.86	-0.4%	-2.1%	-0.3%
달러/파운드	1.228	0.1%	1.4%	1.6%
헤알/달러	5.30	1.1%	1.3%	0.2%
상품				
WTI 근월물(\$)	69.96	-1.3%	2.4%	-12.8%
금 현물(\$)	1,993.15	1.2%	3.8%	9.3%
구리 3개월물(\$)	8,989.00	1.1%	5.5%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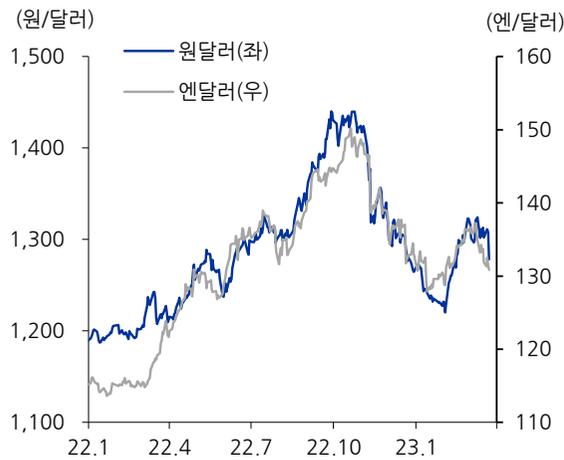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



원달러 환율 및 엔달러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전일 원달러 환율은 -29.40원 급락한 1,278.30원에 마감, 지난 2월 14일 이후 최저치로 하락.
- 간밤 연준이 FOMC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지속적' 금리 인상이 아닌 '약간의 추가 인상' 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연준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 확산.
- 1,298.0원에 개장 후 오전 중 꾸준히 낙폭 확대. 1,300원을 하향돌파하면서 추격 매도 물량이 나왔음. 그러나 오후에는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FOMC 소화, 은행권 불안 심리 등에 혼조세.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시장은 금융 시스템 불안, 경기 위축으로 연내 인하를 강하게 반영 중.
- 지난주 연준의 은행들에 대한 대출은 3,500억 달러로 전주 3,200억 달러 대비 증가하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 22일 모든 예금에 대한 보호 조치 가능성을 부인했던 옐런 재무 장관은 전일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입장을 다소 선회.
-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1만 건으로 전주 대비 -0.1만 명 감소. 신규주택판매도 +1.1%(M) 증가.
- 한편 연준에 이어 전일 영란은행(25bp), 스위스중앙은행(50bp) 등도 인플레 우려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